

단운영의 3대원칙

기쁨 · 보람 · 유익

초기교회단보

■ 발행 및 편집
원불교 수위단회 사무처
■ ☎ 570-754
이리시 신룡동 344-2
■ 전화 (0653) 50-3110·3105

이 법은 오직 한 스승의 가르침으로 모든 사람을 고루 훈련할 빠른 방법이니 몇 억만의 많은 수라도 가히 지도할 수 있으니 그 공력은 항상 아홉 사람에게만 들이면 되는 간이한 조직이니라.

(대종경 서품6장중에서)

법 설

- 이제는 한 사람이 이려고 저려고 하는 시대가 아니고 법치교단 이단치교의 시대다. 이것을 수위단회의 생명으로 알고 나아가라.
- 우리 교단은 법치교단 이단치교하는 교단으로 이는 수위단회의 강령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단의 강령이니 법치교단 이단치교를 생명으로 알아야 한다.
- 이제부터는 교운의 시대요, 교운의 시대는 바로 대종사님의 일원화 시대다. 이는 일원주의와 대세계주의의 역사를 의미한다. 그러므로 대종사님의 교화이념을 담은 교화단 조직으로 이 교단을 운영해 가야할 것이다.

- 원기 77년 새해 아침에 대산종법사님 법문중에서 -

교화단원들에게 충족시켜 주어야 할 세가지

1. 기쁨욕구

- 1)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자비 충만하고 법열충만한 말씀을 베푼다.
- 2) 오락·등산·다과회 등으로 법정을 더욱 두텁게 한다.

2. 보람욕구

- 1) 신앙·수행을 서로 깨우치고 스스로 체험하게하여 가슴 가득히 성자인격을 닦아가는 보람을 안게 한다.
- 2) 봉사를 통한 보살심 구현 보람을 만끽하게 한다.

3. 유익욕구

- 1) 생활정보·교화정보·시사정보·공부사업정보 등을 교환하여 무엇인가 소득을 얻어가게 한다.
- 2) 정초나 대각개교절에는 선물 하나씩을 가지고 와서 서로 교환하는 행사도 갖게 한다.

※ 그러므로 단회에 임하는 단원의 자세는 기쁘고, 보람되고, 유익한 재료를 가지고 임해야 한다.

교화단을 통한 교법구현

유구한 인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우리의 생활환경은 너무도 많이 변했다. 그 중에서도 현대적 상황은 그 어느 때와도 비교될 수 없이 엄청난 특수 상황에 처해 있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제기되는 이 모든 수수께끼들을 슬기롭게 풀어 간다면 미증유의 밝은 내일이 약속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그 반대 결과가 밀어 닥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러한 특수 상황에서 우리 교리가 지닌 미래학적 교훈 가치는 음미(吟味)하면 할 수록, 공부의 깊이가 따라서 더욱 절실이 느껴온다. 이 법이 아니면 현대가 활로를 찾을 길이 없다는 것을 절감한다. 믿고 앓히고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이러한 교훈 의미의 내용이 온 인류의 정신속에 자각이 될 때 우리는 활로를 찾은 긴 한숨을 돌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리의 구현현장을 관리하는 방식의 개발이나 토착화 작업방식의 모색은 시대적 요청임에 분명하다. 아무리 좋은 이념이나 취지라도 현장에서 재현시키지 못한다면 한 조각 휴지이거나 구두선(口頭禪)에 그치고 만다. 거룩한 이념은 반드시 방법론(方法論)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고 좋은 방법론은 거룩한 이념이 있으므로 빛을 발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늘의 서구가 찬란한 문명의 꽃을 피울 수 있게 된 것도 방법론 개발이 항상 앞서서 풍성했기 때문이다.

교리의 현실구현의 문제도 예외일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일찍이 대중사님께서는 이사병행(理事並行)이라고 하여 이념과 사실의 균형적 병행을 교의(教義)의 원칙으로 못 박아 주시기도 하였거니와 교리속에서도 교의편은 주로 이념적 성격으로, 수행편은 주로 사실적 성격의 수행상 실질적인 문제들로 구성하여 이 원칙을 만고불변(萬古不變)의 철칙으로 확립시켜 주셨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이 원칙실정을 해 놓으시고도 부족하여 피교화자(被教化者) 관리의 원칙이나 방법을 단규원칙이나(당시 통치조단규약) 그 세칙(細則)으로까지 마련하여 이른바 물샐틈 없는 짜임새를 이루어 주셨다. 그리고 여기에 크고 절대적인 기대를 갖고 계셨음을 알 수 있다. 오히려 대중사님의 포부와 경륜을 이 단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신 의지를 느낄 수 있다. 더욱이 통치조단규

약 맨끝 부칙 1항에 보면 「본단 원·세칙(原則과 細則)은 본회 창립한도 제3회 36년 이내에는 수시 가감하기로 함」이라하여 초창기에 한해서 가감을 허용하여 보완조절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그 이후는 경솔한 개정마저 신중을 기하도록 크게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이라고 한 이 책은 원기16년 7월 30일 발행됐고 「원칙(原則)」과 「세칙(細則)」으로 구분되어 있다. 원칙은 총 14장에 제54조로 구성되었고 이 가운데는 조직의 문제와 관리의 문제, 운영의 문제에 대한 원칙들이 망라되어 있다. 세칙(細則)은 1장에 총 3절로 구성되었고 이 가운데는 공부 사업간의 망라된 내용을 실제적으로 체크하면서 평가까지 할 수 있도록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하나 하나 점점이나 실시상에서 필요한 각종 도표까지 제시하여 단 운영이나 관리상의 실제 교과서적 지침서로 되어 있음에 대하여 누구나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와같이 훌륭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의 교화단법이 교단구성의 성원인 재가출가의 관리현장에서 왜 토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 언제까지나 우리는 교화단법이 초창기에 있었노라고 교사시간에서나 거론되는 정도에 머물러 있어도 되는 것일까? 교도들은 입문 후 아무런 성장 없이, 변화도 없이 그저 한달 동안 몇차례 법회에 나오는 수준 정도에 머물러 있도록 관리해도 되는 것일까? 이것은 분명히 대중사님의 뜻이 아니다. 교화단법이 갖는 의미도 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동안은 초창기 역사와 혼란한 이 나라 사회 상황이 이 단법대로 도저히 시행할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형식적인 조직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그 동안의 교화현장의 실정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 얼마든지 이 단법을 활용할 수 있다. 오히려 이 단법을 더 이상 사장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 다달았다. 몇 교당에서는 이 교화단법으로 상당한 교화의 실을 거두는 곳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정도로는 아직 요원하다. 교화단 운영의 묘에 대한 터득이 절실히 요청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를 극복해 낼 수 없다. 이

문제가 아무리 어렵고 또 어려워도 극복해 내야 할 문제이다. 이 교화단 운영에 대한 상당수준의 전문 연구진이 교단적 차원에서 구성되고 그 연구진에 의해 끊임없이 교화단 운영방식의 개발에 상당한 대가를 활애해야 할 줄 안다. 선학원 교육 과정에서나 매 훈련 과정을 통해서도 이에 대한 교육과 훈련부터 실시 함으로써 교역자라면 교화단 운영 역량 만큼은 달통이 되도록 해야할 줄 안다. 교화단법에 대한 이론적 강의 정도로는 않된다. 이론적 강의와 더불어서 문제제기·토론·실습·평가를 하고 그리고 다시 문제제기를 통해서 그 해결방안을 탐구하며 개발해 가는 반복 작업이 매년 계속 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만일 이렇게만 된다면 머지않은 장내에 우리의 교화단법은 교화현장에서 토착화할 수 있고 교도들은 교리에 입각한 성장이 몰라보게 달라질 것이다.

그럴려면 우리 출가 교역자 세계에서부터 교화단법에 관련된 풍토조성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출가 교역자 교화단을 이름만이 아닌 현실성이 고려된 방식에 의해 재구성하고 구성된 뒤에는 전체 출가 교역자가 혼연동참하여 거창한 교화단식 교단형성에 한조각 벽돌들이 되려는 알뜰함이 앞서서 요청된다.

이와 같이만 된다면 교단의 운영문제도, 통치의 문제도, 교화의 문제도, 교리이념 구현의 문제도, 국가 사회에의 기여문제도 효과적으로 해결해 갈 수 있는 원천적 기반을 구축한 셈이 될 뿐만 아니라 아무리 벽찬 과제가 당면해 있을지라도 거든히 박차고 전진해 갈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법회상을 향하여 물밀듯이 밀려오는 생명들도 이 교화단의 품에 안아 얼마든지 감당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전무출신의 도

1. 시방삼계 육도사생의 전 생명이 나의 생명이요, 전체 행복이 나의 행복임을 알라.
2. 자신과 교단과 전세계를 위하여 남김없이 심신을 바치라. 만일 무엇에든지 걸림이 있으면 영접대사가 무너지게 되리라.
3. 삼학팔조와 사은사요를 몸소 실행하고 천하 만국 만민에게 전하여 줄 천직이 부여되었음을 명심하라.
4. 몸은 천하의 뒤에 서서 일하고 마음은 천하의 앞에 서서 일 할지니라.
5. 성직은 누가 맡긴 직이 아니요 스스로 맡은 천직인 동시에 대도의 주인이요 하늘 마음을 대 행하는 천지의 주인이니라.
6. 전무출신을 하고서 후일의 바람이 있거나 후회함이 있다면 그는 남의 일을 해준 사람이요 공도의 주인은 아닐 것이다.
7. 일생동안 재색명리의 낙을 이 공부 이 사업으로 바꾸고 보면 영생의 복락은 이루말할 수 없나니라.
8. 몸은 내놓았어도 마음을 내놓지 못한 사람과 마음은 내놓았어도 몸을 내놓지 못한 사람과 몸과 마음을 다 내놓은 삼종의 별이 있나니라.
9. 교도는 일반사회인의 모범이 되어야 하고 전무출신은 일반교도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10. 천하대사를 진정으로 하면 크고 작은 일이 자연히 이루어지나니라.
11. 법을 위하여서는 신명을 바치고 공을 위하여서는 사를 버려야 한다.
12. 각자의 맡은 바 직장에서 그일 그일에 힘과 마음을 다하면 곧 천지행을 함이 되나니라.

종 법 사

출가 교화단 운영 지침

1. 목 적

- (1) 출가 교역자의 상시훈련을 통한 범위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 (2) 출가 교역자의 친목 및 일체감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 (3) 출가 교역자의 공부, 사업, 생활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 조 직

- (1) 남녀를 혼성하여 조직한다.
- (2) 하향식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 (3) 단장은 중앙에서 임명한다.
 - ① 출가 교화단 편성은 중앙 조직위원회에서 한다.
 - ② 중앙 조직위원회는 수위단 중앙단원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수위단회에서 선임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4) 총부지역 교화단 편성은 교당을 제외한 중앙총부와 전 기관을 혼성 조직한다.
- (5) 수위단과 하위단을 연계한다.
- (6) 퇴임자·요양자는 해당기관별로 별도 조직하여 운영한다.
- (7) 휴무자는 해당지역에 편성한다.
- (8) 봉공직은 별도 편성을 원칙으로 한다.

(단, 봉공직 수가 적은 교구는 교무단에 편성한다.)
- (9) 해외지역은 특별단으로 편성하여 미주·구라과지역은 송영봉님이 관리하고 일본지역은 박계권님이 관리하고 기타 아시아 지역은 총부단으로 편성·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10) 예비 봉공직 전무출신은 교육부에서 관할하기로 한다.
- (11) 수위단을 角團이라 이름하고, 각 방위별 수위단원들이 단장이 되고 각교구의 각단단장들이 단원들이 되는 단을 宥단으로 이름하며, 교구별 각단들을 ㄷ단이라 한다.

3. 단장 선출 원칙

- (1) 부장, 교구장, 기관장은 제외한다.
- (2) 분명한 보직자는 제외한다.
- (3) 45세이상 65세미만에서 선출한다.
- (4) 단활동에 성의와 역량이 있는자를 선출한다.

4. 중앙 선출 원칙

- (1) 중앙은 단장이 임명한다.

5. 단장 중앙 임무

- (1) 단장은 상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의 공부, 사업, 생활을 지도 한다.
- (2) 단장은 단원의 의견을 상단에 반영한다.
- (3) 중앙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단 사무를 주관한다.

6. 단 회

- (1) ㄷ단 단회는 한달에 한번씩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① 교구교당 : 매월 첫화요일이나 수요일중 하루.

- ② 총부지역 : 매월 첫 토요일이나 일요일중 하루.
- (2) 卍단 단회는 년 3회씩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월, 6월, 11월)
 - ① 항단 단회는 교화단 활동에 대한 것을 검토 협의하고 의견제출 건을 심의한다.
 - ② 교구장은 항단 단회에 참석 할 수 있다.
- (3) 角단 단회는 1년에 2번씩 갖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① 角단 단회는 출가 교화단 활동 전반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운영지침을 결정하며 의견 제출 건을 심의한다.
- (4) 단회는 다음의 순을 참고하여 적의히 행한다.

※단 회 순

- ① 개 회
- ② 입 정
- ③ 교화단 노래(성가 20장)
- ④ 절부합절 및 설명기도
- ⑤ 법어합독
- ⑥ 지침수행 및 공부사업점검(감각감상 및 경과보고)
- ⑦ 지침 실천방안 모색 및 교리공부(의심견해결)
- ⑧ 의견제출 및 토의
- ⑨ 단원다짐 합독(전무출신의도 및 친애의도)
- ⑩ 심 고
- ⑪ 절부분급
- ⑫ 폐 회

7. 단활동 보고서

- (1) 교화단은 소정 양식의 교화단 일지를 기재하고 일지에 근거하여 교화단 활동 보고서를 수위 단회 사무처에 제출한다.
- (2) 항단 단장은 단활동 보고서를 점검하고 서명한 후 角단 단장에게 제출한다.

8. 상시 훈련 점검표 제출

- (1) 출가 교화단원은 한달간 상시 훈련한 결과를 상시훈련점검표에 기재하여 저단 단장에게 제출한다.
- (2) 저단 단장은 단원의 상시 훈련 점검표를 확인 서명한 후 상시훈련점검 카드에 기록하고 상시 훈련을 지도한다
- (3) 저단 단장은 상시훈련점검 카드를 5개월마다 수위단회 사무처에 제출하고 항단 단장은 이를 확인하고 서명하여 角단 단장에게 제출한다.
- (4) 수위단회 사무처에서는 단원의 상시훈련점검카드를 성적으로 평가하고 인비로 보관하여 범위 사정의 기초자료로 삼는다.

9. 의견 제출건 처리

- (1) 저단에서 제출된 의견은 항단에서 심의하여 角단(수위단)에 제출한다.
- (2) 적절한 의견은 채택 시행하되 유관 기관에 반영되어야 할 것은 적의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도록 노력하고 반드시 결과를 통보해 준다.
- (3) 의견건 제출은 단 성적에 반영한다.

10. 교화단회시 지참물

- (1) 전 서 (2) 상시일기 (3) 절 부 (4) 절부보

친애의 道

전무출신은 다음의 친애의 도를 실행하여야 한다.

1. 전무출신 상호간에는 지중한 윤기와 정의로써 선은 서로 권장하고 격려하며 악은 서로 경계하고 깨우쳐 준다.
2. 동지간에 혹 과오가 있을 때에는 간격 없는 애정으로써 친절히 충고하며 동시에 그 과오가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
3. 충고를 받은자로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들여 참회개과하기로 다짐하고 절대로 불평·수치·혐오의 마음을 두지 않기로 한다. 다만 사실이 없는 일이면 온화한 어조로 그 사실을 해명한다.
4. 개인의 충고가 3차에 미치지 참회개과하지 아니하면 2인 내지 3인의 동지가 협력하여 충고한다. 그 충고가 3차에 이르러도 참회개과하지 아니하면 사유를 감찰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 사건이나 또는 필요에 따라서는 충고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바로 감찰원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5. 동지의 과오를 알고도 충고 또는 보고를 아니한 자나 또는 과오를 대중에게 전파하는 자는 친애의 도를 위반한 자로 간주 한다.
6. 충고하는 동지에게 불평을 가지며 색원대질하고 충고하는 말을 무조건 무시하는 자는 친애의 도를 위반한 자로 간주한다.
7. 동지간에 지식의 우열이 있을 때에는 그 우한 자가 열한 자를 절대로 하시하지 아니하고 힘 미치는 대로 지식을 알려 주는 데에 노력한다.
8. 어떠한 묘법이나 전문이 있을 때에는 기회를 따라 모든 동지에게 전하여 주는 데에 노력한다.
9. 동지간에 혹 병고가 생길 때에는 가족의 정의에 의하여 힘 미치는 대로 정성껏 살펴준다.
10. 동지간에 애경재상 등이 있을 때에는 힘 미치는 대로 돕는다.

—전무출신 규정 제26조—

공 지 사 항

1. 그동안 교정원 교와부에서 관리해오던 출가교화단을 금년부터는 교현에 근거, 수위단회의 결의로 수위단회에서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출가교화단 보고서와 상시훈련 점검카드 제출 및 출가교화단에 관한 문의는 수위단회 사무처(전화 0653-50-311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저단(최하위단)의 정기 교화단회 날짜는 교구교당의 경우 매월 첫 화요일과 수요일 중에서 각단의 형편에 따라 정하여 실시하고, 총부지역은 매월 첫 토요일과 일요일 중에서 각단이 택하여 실시하기 바랍니다.

항단(저단 단장단)의 정기 교화단회는 2월, 6월, 11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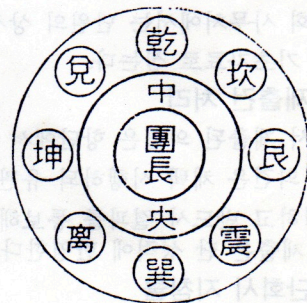
각단(수위단)의 정기 교화단회는 1년에 2회 실시할 예정입니다.

3. 금년도분 출가교역자 상시일기에는 1~11까지의 개인첨가난을 두었으니 각자의 처지와 지시사항 등을 참조하여 활용하기 바랍니다.

4. 개인에게 분급된 절부를 소중히 소지하고 교화단회 시에는 절부의 합결과 분급의 예를 잘 지키기 바랍니다.

5. 교화단 일지는 새로나누어 드린 일지를 사용하시고 그동안 써왔던 일지는 수위단회 사무처에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금년도 교부훈련은 교화단별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일정과 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 직 표

1. 건 방

〈항단조직표〉

명단은 비공개

원기77년도전무출신훈련일정및단별대상

방위 일정	건 방	감 방	간 방	진 방	손 방	이 방	곤 방	태 방	수위단
1차 6.4 ~ 10	3단.4단	2단.3단	11단.1단	2단.11단	2단	9단.2단	6단	1단	송순봉
	6단.10단		3단.4단	12단		8단			송천은
	1단.12단								조정근
2차 6.15~28	73, 74, 75, 76년								
3차 7.3~9	7단	6단.9단	7단.9단	1단.8단	9단.11단	11단.4단	9단.1단	5단.7단	김인철 전팔근 윤주현 이광정
		11단.13단			1단		4단	6단.13단 14단.2단	
4차 7.14~22	8단	15단	8단.10단	9단.10단	3단.6단	1단.13단	10단.2단	12단.15단	김법중 장용철 전종철
				* 3단	8단.10단	5단	3단		
				13단.14단 15단					
5차 8.6~12		10단.12단	12단	7단.13단	4단.5단	12단.6단	11단.5단	8단.9단	유기현 양혜경 오희원
		7단.8단						10단.11단	
		14단						3단	
6차 9.17 ~ 23	2단.13단	4단.1단	13단.2단	5단.6단		10단.3단	7단.8단	4단	박정훈 유성일 김이현
	14단.9단	5단	5단.6단			7단			
	11단.5단								
봉공직 전무출신 훈련 10.5~11									